

# 李荇의 辭賦文學

— 작품내용을 중심으로 —

金星洙\*

<目次>

I. 서론	3. 經世論
II. 본론	4. 修身
1. 儒家道統讚揚	5. 慨世
2. 慕人	III. 결론

<국문 초록>

李荇은 가장 많은 辭賦작품을 남겼고, 官邊文學을 주도한 인물로서 한국한 문학사상 주목해야 할 작가이다. 이러한 그에 대해 아직 그 사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그 작품 수준의 우열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 평가의 과정은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가 남긴 62편이라는 작품에는 다른 辭賦家들이 따르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작품 세계가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李荇의 사부문학에 대한 전체적, 개략적인 이해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면관계로 방대한 양의 原作의 모습을 제시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여기면서, 부득이 그 내용만을 추출하여 편의상 -儒家道統 찬양, 慕人, 經世論, 修身, 慨世-로 나누어 그 내용의 개략을 소개하였다. 그의 사부작품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李荇은 철저한 儒家官僚요, 館閣

\*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kimss@kongju.ac.kr

文人이요, 人本主義者요, 現實主義者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었다. 철저한 유가사상으로 작품을 다분히 이념적인 수단으로 활용한 까닭에 작품의 양에 비해 그의 사부문학의 審美性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李荇의 사부작품을 개괄함으로써 한국사부문학의 주요작가인 李奎報, 徐巨正, 申光漢, 許筠, 張維의 사부문학에 대하여 거칠게나마 일별할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李荇 辭賦의 구체적 모습인 形式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주제어】 李荇, 辭賦文學, 儒家士大夫, 館閣文人, 人本主義者, 現實主義者

## I. 서론

李荇(1478-1534)이 차지하는 韓國漢文學的 위치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더 부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그의 辭賦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하기가 우리 사부문학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진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사부문학사상 가장 많은 사부작품을 남긴 그에 대해서 언제까지 무관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작품의 양으로는 그에 범접할 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어서 그에 대한 얼마간의 논의는 불가피하다. 질을 따지기에 앞서 62편에 달하는 압도적인 분량은 그가 한국사부문학을 대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李荇은 대표적인 勳舊, 館閣 문인으로 그의 작품적 경향은 한 시대를 주도했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알려진 대로 그가 한국의 漢文學을 주도한 인물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그가 다년간 文柄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도 충분하다. 科擧의 주관자라는 사실은 전형적인 科擧문학인 사부문학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부문학을 논의

함께 있어 李荇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李荇이 사부문학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문학적 가치도 같이 평가받을 보장은 없다는 판단이다. 그가 科學文學을 주도했고, 정치적·유가적 이념과 사상이 작품에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문학의 審美的인 가치로는 오히려 약점이 아닐까 한다. 그렇더라도 이것 또한 우리 사부문학의 한 면모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문학적 예술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의 문학사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李荇의 사부문학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가 남긴 사부작품 전부를 한 편의 논문으로 논의한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사실을 알지만 학술지의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여기서는 최소한의 연구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먼저 그의 모든 작품을 주제, 기능별로 분류하여 그 주제적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작품의 일부를 선정하여 서둘러 대표성을 추출하기보다는 그의 전체적인 작품의 경계를 알아보는 것이 그의 사부문학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언급해야 할 작품이 많아 그 내용도 아주 간략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음이 유감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작품을 연역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귀납적으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한정된 지면으로 하여 작품의 형식적 측면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辭賦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형식적인 규명이 되지 않고서는 사부문학의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한계가 크다. 그러나 원작의 모습은 『韓國文集叢刊』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필자가 이미 발표한 다른 사부작가의 연구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形式的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

## II. 본론

李荇의 사부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에 대한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분류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연구의 편의상 그 주제별 기능에 기준을 두어 1.儒家道統 찬양. 2.慕人 3.經世論 4.修身 5.慨世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어떠한 분류도 완벽하기 어렵다면 이 체제도 일정한 한계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분류항목이 자의적일 수 있고, 내용적으로 겹쳐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애매할 수도 있다.

### 1. 儒家道統 찬양

조선의 건국 이래 治世의 이념이 유가사상인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李荇이 그 중심에 서 있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니, 그의 작품에서 이러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사부문학이 유가사상과 특별한 역사적 인연이 있음도 주의할 일이다. 사부문학과 유가적 治世論은 일반적인 문학사회학적 해석과는 보다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부문학이 과거시험의 주요한 관문으로 사용되어 유가적 인재발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한 장르의 문학이 인재등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장르의 향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文柄을 잡았던 李荇이 사부창작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사부문학이 제도적으로 儒家를 國是로 한 조정의 특별한 장려와 배려를 받아 융성했으니 그 내용이 유가도통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찍이 입증된 사실로, 漢의 儒家思想的 國是와 漢賦의 융성이 일치되었던 것과 같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sup>1)</sup> 이렇듯 사

부와 유가사상이 인연관계가 깊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작품이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 구체적 작품을 간단히 소개한다.

① 六經聖道之垣

六經<sup>2)</sup>은 유가의 도리를 지키는 근본이다. 작품에서는 이를 儒家의 진리를 지키는 성곽과 해자에 비유하여 찬양하고 있다. 秦始皇이 六經을 焚書한 만행에 대하여 분개하고, 그로 인하여 儒家道統이 무너졌음을 개탄하였다. 후대의 학자들이 六經을 恣意로 해석하여 진리를 어지럽혔던 사실을 탄식하면서 濂洛의 功<sup>3)</sup>으로 儒家道統이 바로 서게 된 것에 대하여 치하하고 있다. 작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儒道를 수양하고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다음의 修身의 자세와도 상통한다.

② 三綱宇宙棟梁

夫婦, 父子, 君臣은 儒家道統을 떠받치는 동량으로 유가의 이른바 三綱의 덕목이다. 그 기반이 흔들리는 세상을 개탄하면서 이 道統을 튼튼히 하고 지켜내는 것이 군자의 책무라고 다짐한다.

③ 一治一亂

천지창조 이래 인류역사는 儒道로써 治하고, 邪道고써 亂이 갈마들었다고 했다. 堯의 治水를 桀紂의 炮烙으로 어지럽히고, 周公의 治世를 春秋의 난세로, 孔子와 孟子的 仁義를 楊墨의 橫行으로 망쳤다고 단정하면서,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一治一亂의 음양의 역사원리로 파악하고

- 1) 중국문학사상 漢을 대표하는 중심장르는 이른바 漢의 古文인 漢文과 漢의 賦인 辭賦다. 漢賦는 辭賦의 극성시기로 인재등용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辭賦의 重用은 漢의 통치이념인 儒家思想에 힘입은 바 크다. 여기에 소개되는 ‘題柱’의 작자인 漢代 최고의 辭賦家였던 司馬相如도 辭賦를 통해서 입신양명할 수 있었던 일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 2) 易經 禮記 書經 詩經 春秋 周官(周禮)
- 3) 宋 周敦頤가 살던 濂溪와 程顥, 程頤가 살던 낙양을 말하는 것으로 뒤의 朱熹에 이르기까지의 性理學을 말함.

있다.<sup>4)</sup> 治의 근본은 모름지기 儒道임을 천명하면서 儒家道統을 찬양하고 있다. 작자도 孟子를 본받아 治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修身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자가 처한 상황이 治의 시대인지, 亂의 시대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④ 浴沂

공자의 제자인 曾點의 舞雩之樂<sup>5)</sup>의 경지를 찬양함으로써 유가도통의 전통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일반적인 儒家道統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같이 등장하고 있는 子路, 冉由, 孔西華 등과는 달리 曾點이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無食無慾 安貧樂道의 도가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이는 유가도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道家의 無爲自然과는 같지 않음을 새삼 내세워 차별화하면서 애써 儒家道統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安貧樂道와 無爲自然과의 차이는 속세를 초월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야 좋을 것이니, 속세에 가치기준이 있으면 儒道요, 그것을 초월했으면 無爲自然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 ⑤ 問津

問津은 공자가 子路를 시켜 道家의 무리에 길을 물은 고사를 작품화한 것이다. 길을 물었다는 것을 진리를 물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면 이는 공자의 고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자는 이를 공자가 신념을 표백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救世意志와 使命의식과 실천의지로 간주하고, 이것을 禹의 治水에 비교하면서 유가도통을 찬양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問津은 儒道가 드러나지 않음을 탄식한 것이고, 작품에서 道家들이 공자를 조롱한 사실을 그들의 무책임한 도피와 합리화로 간주하여 비판하고 있다.<sup>6)</sup> 사실 『論語』의

4) 『孟子』 滕文公下. 天下之生 一治一亂

5) 『論語』 先進 참조.

후반부에는 공자의 인간적인 고뇌와 失意와 체념이 은근히 숨어있다, 앞의 舞雩之樂을 비롯하여 乘桴浮于海<sup>7)</sup> 등에서도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진솔한 공자의 고뇌가 숨어있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이 늘 그랬듯이 작자는 이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

#### ⑥ 治水

禹의 치수의 功을 통하여 유가도통을 찬양하고 있다. 사실 치수가 유가도통을 이은 것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유가들은 늘 그렇게 주장해왔고, 작자도 그렇게 간주하고, 특히 結辭<sup>8)</sup>에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후인에게 강조함으로써 스스로의 修身의 다짐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작자의 철저한 유가적 사명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 ⑦ 孟子功不在禹下

孟子的 공이禹에 비견한다는 논리는 맹자의 공을 최대한 높이자는 의도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유학자의 功을 帝王의 수준으로 높였으니 그 의도를 알만하다. 그러나禹는 전설상의 治水帝王이지 유가의 도통과는 본래 무관한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다.禹를 유가의 도통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도 유가도통을 찬양하자는 의도요, 맹자를 그에 못지않은 존재로 격상시킨 것도 역시 성리학자들의 의도이다.<sup>9)</sup>

#### ⑧ 靈囿

靈囿는 周 文王의 遊園地이다. 왕의 德治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하룻만에 완성했다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말하자면 유가도통의

6) 『論語』 微子 참조.

7)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고자 한다’라고 失意를 탄식한 적이 있다. 『論語』 公冶長

8) 結辭란 辭賦작품의 3단구성 중 結의 부분을 말한다.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대개 亂曰 重曰 辟曰 歌曰 訊曰 등의 結末標識로 되어있고, 다양한 감탄사로도 표지되어 있기도 하다. 辭賦의 주요한 형식적 요소이다.

9) 성리학자들은 맹자를 공자의 계승자로 받들고 性善說을 유가의 정통교리로 규정하였고, 陽明學者들은 맹자의 良志, 良能을 바탕으로 心學을 주장하였다.

통치로 이룩한 興民·백성과 더불어-의 대유적인 이상향인 셈이다. 문왕에 대한 찬양은 유가도통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후대의 霸君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기도 하다.<sup>10)</sup> 그리고 지금이 文王의 靈囿에 버금할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작자의 관료적인 의증을 읽을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과 포부를 짐작케 하고, 그러한 상황 또한 辭賦의 문학적 한 모습일 것이다.

#### ⑨ 南薰琴

南薰琴은 舜이 애용했다는 琴으로써 태평성대의 상징물이다. 琴은 유가의 藝樂을 상징하며, 후세의 유가들은 공자의 彈琴은 舜의 남훈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러나 남훈금은 유가도통에 대한 찬양적 代喩物이다. 그러나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작자는 남훈금을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은 모름지기 舜의 ‘치세의 공’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남훈금의 道統이 구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堯舜의 태평성세의 모습은 유가보다는 도가적 가치관에 더 어울리는 상황이었고, 남훈금 자체가 도가적 성향이 농후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성현시대의 태평성세를 그리 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道家的 세계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2. 慕人

모인이란 역사적 인물이나 유가의 옛성현을 추모한 작품을 모은 것이다. 앞의 것이 철두철미 유가적 도통을 찬양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얼마간 주제의식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구분하였다. 역시 儒家聖賢을 찬양하고, 유가중심의 인물예찬이 주류이지만 국난을 극복하고 충절을 다한 救國의 역사적 인물과 武人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

10) 맹자는 齊 宣王에게 靈囿의 예를 들어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도리를 말하였다. (梁惠王下)

다는 사실에 그의 사부문학 세계를 확장시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武人예찬은 문인의 文治활동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만해도 당대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더욱이 반가운 일은 慕人의 대상에 중국인이 아닌 우리의 역사적 인물이 끼어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철저한 事大的 館閣文人이었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우리의 소재는 매우 소중한 신선하다.

#### ① 下帷

下帷는 漢 儒家의 中興祖인 董仲舒의 學堂이다. 董仲舒는 평생 여기에서 유학을 닦고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한다. 장막으로 외부와 차단하고 유가사상을 확립하기에 發憤忘食하였다 하니 유가사상이 漢의 國是로 채택되기까지는 그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下帷는 그러한 董仲舒의 업적을 찬양한 것이니 유가도통을 찬양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는 동중서 개인에 대한 예찬의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분류를 달리하였다. 작품 중에 이 글을 對策文으로 올렸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 작품은 일종의 科體賦, 獻賦<sup>11)</sup>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과체부는 과거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작품으로, 이를 통하여 당대 科擧에 사용되던 辭賦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그만큼 館閣文學의 성격이 짙고, 當代 과체부의 典型이어서 이 작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② 圮橋

圮橋는 張良이 黃石公으로부터 병법서를 전수받았다는 전설상의 흠다리이다. 이러한 고사를 소개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했으니 결국 장량

11) 科體賦란 과거시험에 상투적으로 쓰이던 형식의 辭賦를 말한다. 사부는 원래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후대에 사부가 과거시험에 채택되면서 主管者로부터 일정한 형식을 요구받아 상투적인 형식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과체부이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固定된 형식은 내용마저 제약하게 되어 과체부는 결국 문학적인 미학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八股文, 조선의 東賦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獻賦는 官用體의 御用辭賦로 科體賦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에 대한 追慕의 글이다. 당대의 영웅인 韓信과 비교하면서 한신의 武勇, 才厚德薄과 장량의 功遂身退, 忍恥之德을 찬양했으니 그의 유가다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다. 博浪沙 1, 2와 비교할 수 있다.

### ③ 將壇

將壇<sup>12)</sup>은 韓信의 무공을 찬양한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찬양하기 보다는 그의 功過를 같이 논의하고 있어 다른 慕人の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신이 무력을 자주 내세우고 과욕을 부린 것에 대하여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유가의 이념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유가의 仁義에 의한 治世論을 내세우고 있다.

### ④ 孔子聖之時

이 작품은 맹자가 공자를 예찬한 것을 소재로 삼아 공자를 예찬했으니 유가도통을 찬양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공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伯夷는 聖之清者, 柳下惠는 聖之和者, 伊尹은 聖之任者인데 孔子는 聖之時宜라 하여 극찬하고 있다.<sup>13)</sup>

### ⑤ 擊楫

이 작품은 晉의 祖逖을 찬양한 글이다. 東晉의 실제인물인 조적의 영웅적인 행적을 상세하게 언급하며 찬양과 추모와 탄식을 아끼지 않고 있다. 조적은 鷄鳴起舞, 枕戈待旦<sup>14)</sup>이라는 成語의 주인공으로서 漢族의 疆土를 실현한 淝水의 애국지사였다. 무인의 武功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작자가 武人인 조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예찬한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그의 업적이 단순한 武功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中國의 文治主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조적의

12) 劉邦이 蕭何의 권유로 壇을 쌓고 韓信을 장수로 받아들인 곳.

13) 공자는 제자와 맹자로부터 生民以來 최고의 聖者로 추앙받았다. 『孟子』 萬章下 참조.

14) 鷄鳴起舞, 조적이 벗 劉琨과 더불어 失地회복의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벽닭이 울면 곧장 일어나 무예를 연마하였다. 枕戈待旦. 이들은 창칼을 베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있었다.

분투에도 불구하고 기울어가는 팍을 구하지 못한 것은 통치자의 무능이었음을 개탄한 것은 간접적으로 慕人の 충정을 토로한 것이다.

#### ⑥ 義田

義田은 北宋의 賢臣 范仲淹이 사재를 들여 마련한 救恤田이었다. 나라로부터 받은 賜田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쾌척한 그의 행적을 찬양한 것이다. 그것이 유가의 治世論에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작품이 개인적인 업적을 기리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⑦ 弔三元帥

弔三元帥는 흥건적의 침입으로부터 高麗를 구한 安祐 李芳實 金得培을 추모한 글이다. 그들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고 있지만 亂臣賊子들의 음모로 그들을 희생시킨 당대의 어지러운 현실을 비판한 개탄을 적고 있다. 李荇의 작품 중에서 武將을 예찬한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것이 중국이 아닌 우리의 역사적 실존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더 반가운 일이다.

#### ⑧ 魚鼈成橋

魚鼈成橋는 우리의 역사인 동명왕신화를 소재로 한 것이어서 더 반갑다. 李荇의 작품 대부분이 중국의 역사인물로 채워져있음을 생각하면 그렇다. 그것도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여 神異한 사건이 주된 화소였다면 儒家문학으로서의 또한 드문 일이다. 그러나 그의 유가적인 가치관은 영락없어 그러한 神異한 사건을 부정하면서 인본주의적인 仁治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 ⑨ 孔明廟栢

孔明廟栢은 제갈공명의 묘소를 직접 찾는 모습을 빌어서 그의 충절을 기린 작품이다.<sup>15)</sup> 주요 소재인 栢을 집중묘사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것은 주인공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므로 제갈공명을 예찬한 것이 주된 의도라고 해야 한다.

#### ⑩ 孔明廟栢 2

15) 四川 城都에 있는 錦官城인데 작자가 직접 답사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전편과 대동소이하다.

⑪ 仲尼日月

仲尼日月은 공자를 일월에 비유하여 예찬한 작품이다.<sup>16)</sup> 공자를 본받아 修身할 것을 다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된 의도는 공자 찬송이다.

⑫ 哀晁錯

晁錯은 東漢 景帝 때의 유능한 정치가요, 충신인 실제인물이다.<sup>17)</sup> 황실을 위하여 막강한 제후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다가 결국 제후들의 압력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한 일을 기리며 추모하는 내용이다. 신하로서 충정을 다짐하며, 동시에 자신의 충정을 투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

⑬ 題柱

題柱는 漢의 辭賦家 司馬相如를 추모한 작품이다. 그의 재능과 기개와 야심을 찬양했지만 또한 그의 鄙陋한 태도와 阿諛에 대해서는 비판하여 마지않았으니 일방적인 흠모로 그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마상여가 題柱한 행위<sup>18)</sup>와 관계없이 用行舍藏의 도리를 다짐하면서 올바른 처신과 修身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⑭ 博浪沙

博浪沙는 漢의 張良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실패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무력으로 암살하려는 방법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의 충의의 의거와 漢의 대업을 이루고 보여준 功遂身退- 功을 이루고 물러남-의 의연한 위업을 기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삼아 자신의 修身의 모범으로

---

16) 子貢에게 공자를 헐뜯는 자가 있어 子貢이 공자의 위대함을 日月에 비유하였다. 『論語』 子張  
 17) 『史記』 晁錯列傳 참조.  
 18) 司馬相如가 長安으로 들어가면서 昇仙橋의 기둥에 ‘대장부가 駟馬를 타지 않고는 다시는 이 다리를 지나지 않으리라’라고 썼다고 한다. <史記> 司馬相如列傳 참조.

삼고 있다.

⑮ 博浪沙 2

역대의 의협협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진정한 용기를 張良의 功遂身退의 義氣로 삼으면서 그의 공을 추모하고 있다.

⑯ 縞素三軍賦

縞素三軍은 무력을 내세운 군대가 아닌 儒道로 무장한 義로운 軍師를 의미하며, 漢 劉邦을 혁명군으로 지칭하여 찬양한 작품이다. 그런데 찬양의 초점은 仁義의 군사를 이끌고 儒道文治를 펼쳐 대업을 완성한 유방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인물예찬으로 보았다.

⑰ 哭秦庭

이 작품은 戰國 楚의 충신 申包胥의 행적을 기리며 그의 충절을 예찬한 것이다. 그 흔적을 찾기 어렵고, 단지 역사의 기록만을 가지고 남의 나라 인물을 일방적으로 예찬한 것은 충신을 다짐한다는 그 교훈적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우리하고는 어떠한 인연도 없고, 전설같은 기록만을 의지하여 남의 나라 인물을 예찬한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의 작품 중에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작품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점이 그 문학적 수준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⑱ 義不帝秦

義不帝秦은 당대 강대국인 秦王이 皇帝를 僭稱하는 것에 대한 魯 仲連의 의로운 저항을 예찬한 작품이다. 중련의 이러한 행위는 불의에 대한 열혈의사의 진정한 용기요, 의거였으므로 이를 예찬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유가의 정신을 실천한 義舉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거는 일개 협객의 暴虎憑河하는 武勇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⑲ 哀朴仲說辭

哀朴仲說辭는 당대의 문인인 朴間<sup>19)</sup>의 죽음을 애도한 일종의 永訣辭

19) 字 仲說(중열) 號 揖翠軒. 1479-1504. 당대 유수의 문인, 시인. 海東江西派로

에 해당한다. 祭文 특유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적지 않지만 그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절실한 표현을 보인 작품도 찾기 어렵다. 사부가 대개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한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작품은 문학의 진실성에서 나오는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더구나 우리 역사의 실재인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sup>20)</sup>

### 3. 經世之道

經世의 道란 세상을 다스리는 유가의 도리로, 『大學』의 이른바 治國平天下를 시행하는 군주와 사대부의 구체적인 治世의 도리이다. 다른 항목보다 훨씬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는 점에서 구분하였다. 儒家의 문물제도를 찬양한 것을 구체적 經世의 방법론으로 보았고, 충절 절개의 행적을 기리는 것도 경세의 도리로 잡았다. 가장 분명한 경세의 도리는 君主之道와 輔弼之道를 밝힌 작품들일 것이다. 이들은 치국평천하를 직접 담당하는 자들로, 그 역할이 누구보다 크다는 사실을 작자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경세의 도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역사의 과오에 대해서는 엄중한 비판을 마지않았는데 이것 또한 경세의 도리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수단으로 본다. 義理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주요한 덕목이므로 당연히 經世之道의 핵심이지만 俠客의 義學도 거기에 포함시켰다. 다만 작자는 血氣에 의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를 잊지 않았다. 農政을 장려하는 것도 經世도리의 하나였다. 그것은 『孟子』의 이른바 ‘民生’과 ‘恒產’의 유가사대부 정신과 상통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신비주의적인 巫俗행위마저도 治世의 도리로 정

불림. 才勝剛直하여 당쟁에 일찍 희생됨. 작자와 절친.

20) 이 작품은 哀辭로 불리기도 하여 통상 辭賦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사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니 사부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金星洙, 「李苻의 哀朴仲說辭의 장르考」, 『漢文古典研究』 15, 2007.를 참조할 수 있다.

당화하기도 했다.

① 三雍

三雍이란 漢의 학문기관인 辟雍 明堂 靈臺를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유가 경세도리의 상징물에 해당한다. 이곳은 유가도리를 연마하는 곳이고, 유가의 도리란 곧 경세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세상은 모두 유가의 경세도리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가의 경세도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도리를 펼칠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이러한 도리를 실현할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작품 중에서 은근히 과시하고 있다. 삼옹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志士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현실적 야망, 의지마저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② 停婚仆碑

이 작품은 唐太宗과 당대 명신인 魏徵의 고사를 소재로 君臣之道, 治世之道를 형상화한 것이다. 태종이 위징과 혼약을 하고 비를 세워 表徵을 하고서도 훗날 참언에 속아 파혼하고 스스로 세운 서약의 碑까지 쓰러트렸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君臣의 도리를 강조한 것이다.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失政, 失人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신하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군주의 책무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대부 정신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③ 擊筑

擊筑은 戰國의 협객 高漸離가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筑을 연주하였다는 고사를 말한다.<sup>21)</sup> 흔히 이러한 자객의 행위를 의로운 일로 칭송하지만 儒家의 관점으로 보건대 이는 血氣에 가려 올바른 義理를 보지 못한 결과이다. 그래서 荊軻, 고점리의 혈기를 張良의 義理에 비교하면서 진정한 經世의 도리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강물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협객의 혈기가 아니라<sup>22)</sup> 유가의 公理인 義理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21) 『史記』 刺客列傳 참조.

## ④ 長安

長安은 중국 累代의 도읍지인데 長安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흥망 성쇠를 유가경세의 도리에 맞추어 비판하고 있다. 결국 그 어떠한 도리도 유가의 仁義德政과 같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君主一心攻者多

이 작품은 군주의 능력은 일정한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많다는 것으로 군주의 도리를 설파하고, 군주에 대한 경계론을 편 것이다. 군주가 피해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인 美人, 酒池肉林, 黃老術과 佛敎, 戰爭, 土木工事, 사냥, 奢侈의 폐해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군주를 경계하고 있다. 결말에서도 군주에 대한 경계를 箴의 형식으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군주가 지켜야 할 계명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것도 모두 유가의 經世道理에 해당한다.

## ⑥ 魚水一堂

물고기가 제 아무리 잘났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와 같아서 魚水가 一堂이 되어야만이 經世의 도리를 시행할 수 있다. 魚水一堂의 선례로 舜 - 皐陶, 湯 - 傅說, 文王 - 姜太公, 劉備 - 諸葛亮 등을 들어가면서 그 經世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고기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조정은 君臣의 道가 무너져 난세를 면치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작품 중에 우리의 景福宮 慶會樓를 작품의 배경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포부와 소망을 드러내는 장면은 우리의 소재라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그의 사부는 중국적 요소가 많다는 말인데 이것도 그의 사부를 높이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 ⑦ 逆鱗

逆鱗은 용의 아래턱에 붙어있다는 비늘로,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한다.<sup>23)</sup> 龍은 君主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가까운

22) 暴虎馮河 死而不悔者 吾不與也. 『論語』 述而.

신하일 것이니 군주를 모시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이다. 신하는 항상 이러한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경계하였으니 이는 군주에 대한 신하의 輔弼之道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왕은 경외와 공포의 대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작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逆鱗을 거스리는 직언을 감행하고 있으니 이는 자신의 충직함을 과시하지는 의도일 것이다.

⑧ 歲寒松柏<sup>24)</sup>

歲寒松柏은 충직한 군자의 상징물이니 군자의 덕을 칭송함으로 해서 유가의 경세도리를 펼친 것이다. 군자의 덕성을 강조한 면에서는 修身의 의미도 있지만 ‘누가 목숨을 던지며 직언하라’하면서 펼치는 忠臣直諫之道는 유가의 주요한 輔弼之道요, 經世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묶었다.

⑨ 白帝廟

白帝廟는 蜀의 역대 영웅들을 配享한 곳으로 歷史懷古의 현장이다.<sup>25)</sup> 蜀의 비극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망국의 슬픔을 아파하면서 失政과 秕政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功過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과 비판은 곧 經世의 도리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⑩ 上林六責

上林六責이란 湯王이 가뭄을 맞아 상림에서 祈雨祭를 지내면서 여섯 가지 自責한 사실을 말한다. 그 여섯 가지 자책이란 조정에서 ‘절도를 지켰는가?-朝政不節, 백성을 제대로 보살폈는가?-下民失職, 무리한 토목 공사를 하지 않았는가?-土木是事, 여색에 빠지지 않았는가?-未杜女謁, 뇌물이 성행하지 않았는가?-苞苴公行, 참언에 휘둘리지 않았는가?-間之讒說이다. 이 여섯 가지는 군주가 지켜야 할 필수요목이요, 경세의 도리이

23)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嬰之者則必殺人 人主亦有鱗 說者能無嬰人主之逆鱗則幾矣. 『韓非子』 說難.

24)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 『論語』 子罕.

25) 四川省 奉節縣. 公孫述 馬援 劉備 諸葛亮 關羽 張飛 등의 西蜀의 영웅들을 모신 사당. 역시 작자가 답사했을 가능성이 적다.

다. 성군으로 일컫는 탕왕이 이 경세의 도리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巫俗的인 祈雨祭를 지내는 현장이라면 儒家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儒家에서는 이 무속적 행위에 대해서 '백성의安危를 염려하는 군주의 애민적, 희생적, 선언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역시 유가의 經世도리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이라면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잘못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신비적 행위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교적 人本主義의 한 모습이다.

#### ⑪ 土牛

土牛는 곧 農牛로, 토우를 예찬한 것은 農耕을 經世의 으뜸으로 찬양한 것과 같다. 土牛를 찬양한 것은 곧 勸農을 善政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니 農政이 經世의 道인 셈이다. 그리고 선비의 역할을 농군에 비유하여 이를 儒道와 일치시키는 논리를 펴고 있다. 農政과 儒道의 공통점은 백성으로 하여금 식량을 해결하고 恒産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孟子』의 民本主義의 정신에 닿아 있다.<sup>26)</sup> 그의 사부작품이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않은 가운데에서 이러한 務實的 작품은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 ⑫ 土龍

土龍은 농군들이 祈雨祭를 지낼 때에 흙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상징물이니 이를 작품화한 것은 다분히 巫俗的이다. 그러나 철저한 사대부였던 작자가 이러한 무속적 행위를 정상적인 경세의 도리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작품에서 그 허황됨을 비판하면서, 유가 특유의 反神秘主義와 人本主義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로지 유가의 도리만이 진정한 경세의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소재인 土牛와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26)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孟子』 滕文公.

## 4. 修身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하였듯이 修己化俗-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교화시킴-은 儒家의 본질적인 목표요, 실천덕목이다. 儒家들이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였던 당시에, 그들이 또한 文人이었던 까닭에, 가장 전형적인 사대부문학이었던 辭賦文學이 이러한 정신에 투철하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修身은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儒家精神이다. 수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대부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安百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修身은 立身の 바탕이요, 揚名은 化俗의 성과이다. 수신은 治國平天下를 이루기 위한 기반이요, 유가 사대부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인 바탕인 것이다.

性理學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의 문인들은 그 이념에 따른 사부를 많이 지었는데 대개는 성리학 특유의 思辨的이고 이념에 치중하는 경향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래서 우주의 생성원리와 천지운행의 섭리에 관심이 많았고, 理氣를 궁구하였으며, 내면적인 心性성찰에 주력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적인 禪의 경지나 도가적인 玄妙의 세계까지 출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道家的인 요소가 적지않게 작용하는 현상은 儒家 일변도였던 다른 작품들을 생각할 때에 매우 이례적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작품들은 작자가 처한 처지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浮沈을 거듭해야 하는 宦路에서 失志와 失意 또한 자주 겪어야 할 일이었고, 그러한 처지에서 시련과 고초를 극복해야 할 道家的인 自慰策이 필요했던 것이다. 孔子도 실의와 실지에서 隱遁放逸적인 태도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論語』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 ① 庭草交翠

庭草交翠는 ‘정원의 풀이 우거져 푸르다’라는 뜻인데 周敦頤가 自然流轉 鳶飛魚躍의 無極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장면에서 유래한 제목이다. 성리학의 開昌者인 주돈이를 유학의 中興組로 규정하고, 그를 흠모하며 이를 본받아 군자의 도를 닦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庭草交翠

는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修身의 다짐을 다지는 버리요, 자연적 상징의 상황이다. 성리학자들은 자연현상에 불과한 鳶飛魚躍 庭草交翠에도 형이상학적이고, 관조적, 교훈적인 가치관을 부여하기를 좋아하였다.

#### ② 天河

天河는 銀河水로 우주의 운영을 主宰하는 상징물이다. 천하의 星座의 운행이 바로 되면 人世의 治世도 바로 되는 것이니 天河는 敬而遠之의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天河를 우러르며 태평성대를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사대부로서의 사명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거기에는 어지러운 세태에 대한 怨望과 탄식도 드러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대부는 끊임없는 修身이 遂行되어야 한다는 다짐이 주류이다. 天河를 보고 가벼이 견우직녀의 전설에 빠지는 것은 군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 사대부는 가벼운 감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에서 관조적, 명상적, 형이상학적인 사대부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 ③ 蟋哀秋吟

가을밤에 귀뚜라미가 풀밭에서 우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에 불과한 일이지만 儒家들은 거기에서 우주와 삶의 원리와 이치를 결부시키기를 좋아하였다. 거기에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다가 결국 그것은 宇宙運行의 무극적 현상일 뿐이라는 초월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점에서 道家的 성향을 감지할 수 있고, 나아가 관조적, 형이상학적 가치관에 이르게 된다. 작자는 철저한 유가사대부였지만 修身의 단계에서는 자주 도가적인 玄妙의 경지까지 넘나들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의 수법은 성리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수단이기도 하다.

#### ④ 恥

이 작품은 『孟子』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無恥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sup>27)</sup>에 기반한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진정한 앎이요,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니 이는 곧 유가적 廉

恥의 修身의 다짐이다.

⑤ 東門掛冠

東門은 宦路와 속세를 빠져나오는 絶緣의 공간이요, 掛冠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적 행위로서 致仕隱遁을 의미한다. 소재적인 면에서 도가적 성향이 짙게 묻어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러한 隱遁致仕가 일신상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개개 군자가 그리하면 임금은 누구와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여전히 사대부로서 군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 유가적 사명의식과 道家의 은둔사상과의 충돌에서 오는 가치관의 갈등을 군자의 修身으로 극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유가사대부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登瀛洲

瀛洲는 唐太宗 때 인재등용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天策府文學館을 일컫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唐의 문물제도와 성현들을 예찬한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그러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다짐이 이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실적, 학문적 야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瀛洲가 도교적 신선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작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⑦ 醯鷄

醯鷄는 초파리로 莊子가 하찮은 微物의 상징물로 제시한 것이다.<sup>28)</sup> 그리고 莊子의 의도대로 만물을 醯鷄와 같이 보고 있으니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가치관과는 달리 도가적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처음부터 列子를 언급하면서 유가의 실천적 경지에서 벗어나 道家의 觀照세계를 펼치고 있으니 그 修身의 자세가 과격적이어서 흥미롭다. 이러한 관념의 세계는 작자의 失志의 처지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⑧ 君子不器<sup>29)</sup>

27) 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 『孟子』 盡心上

28) 『莊子』 田子方 참조.

29) 子曰君子不器. 『論語』 爲政

君子不器는 편협하지 않은 군자의 用行舍藏의 大器를 의미하는 것으로 孔子의 君子道와 儒道를 예찬한 작품이다. 鴻儒不器의 경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道家的 초월의 경지까지 원용하고 있는 것에서 아직 관념적인 性理學의 일면을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작자는 결국 유가 군자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修身의 다짐을 내세우고 있다.

#### ⑨ 蠻觸

蠻觸은 蝸角之爭에 나오는 『莊子』의 話素로 道家的 초월적 가치관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sup>30)</sup> 이 작품에서 이는 중심소재요, 주제의 상징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짙은 도가적 가치관이 드러나있다. 부분적으로 도가적 가치관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가적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도가적 편향의 작품은 매우 드물어 「醜鷄」와 더불어 관심이 가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자가 失志의 처지에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은 『論語』에서 도가적 요소가 드러나는 경우와 맥이 닿아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⑩ 砥柱

砥柱는 黃河 중류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로, 유가들은 이를 천하를 떠받치는 擎天一柱의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것을 자신들의 지조와 自矜의 상징물로 삼았다. 그래서 역대 유가 성현들을 기리며 자신도 그에 따르는 역할을 하고자 修身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고 지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卷裏風光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문학의 진실성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면모는 사부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폐로 지적되기도 한다.

#### ⑪ 觚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을 ‘詠物의 辭賦’라고 할 수 있다. 詠物은 사물을 집중묘사한 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사부문학의 주요한 내용적, 수사

30) 『莊子』 則陽 참조.

적 전통이라 할만하다. 李荇의 경우 그 대상물들이 중심소재로 묘사되어있기는 하나 그것은 상징물에 불과한 것으로 작자의 의도는 그 속에 담겨진 본질을 천명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으레 儒道와 사대부 정신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修身의 성격이 짙어 여기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대부의 정신과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다. 觚는 四角진 祭器의 하나로 이른바 『論語』의 正名論과 名分の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이름이 이름답지 못하다면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sup>31)</sup> 모름지기 명분, 正義가 바로 서야만이 치세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이니 공자가 이를 탄식한 것은 儒道가 제대로 서지 않은 데 대한 慨世인 셈이다. 작자가 이를 정밀묘사한 의도는 명분을 바로 세워 유가의 도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니 經世의 도리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주장들이 드러나지 않게 간접적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의도의 중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修身의 다짐에 있다.

#### ⑫ 鼎

鼎은 儒家治世道와 國家權威의 상징물이다. 그런 면에서 觚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권위와 책임과 범위가 더 크다. 그래서 작자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더 크고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修身의 의욕은 秕政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현실참여정신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다.

#### ⑬ 雲

雲은 자연현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재와는 이질적이다. 구름이 자연현상의 조화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훨씬 크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막연한 敬畏感이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자연현상에 좌우되지 말고, 사대부의 정신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세상을 바로 잡자는 인본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야말로 ‘敬而遠之’의 정신을 충실히 형상화한 것이다.<sup>32)</sup> 군주는 군주대로, 신하는 신하

31) 觚不觚 觚哉觚哉. 『論語』 雍也

32) 하늘을 섬기고 받들되 매사를 그에 의지하지 말라. 敬鬼神而遠之. 『論語』 雍也

대로 본분을 다했을 때 구름도, 용도 따를 것이라는 구상은 그가 철저한 인본주의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연현상의 상징물들은 현상일 뿐, 그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만사는 오로지 사람하기 나름이라는 믿음은 儒家 人本主義 修身의 要諦이다.

#### ⑭ 豐城劍

劍은 선비의 기개와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고, 豐城劍은 吳의 명검이니 이는 작자의 사대부로서의 뛰어난 자부요, 功지의 代喩物이다. 그러나 단순히 名劍禮讚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한낱 匹夫之勇에 지나지 않는다. 풍성검은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상징적인 본의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선비의 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있다.

#### ⑮ 文房四友

文房四友를 예찬한 것은 곧 儒道와 선비정신을 예찬한 것이다. 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유도와 사대부 정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의 숙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經世 治道를 수행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그의 인본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 5. 慨世之歎

慨世之歎은 잘못된 세상에 대한 탄식이다. 그 원인은 儒家道統이 흔들리고, 經世之道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자가 유가도통을 기리고, 유가성현을 추모하고, 修身을 다짐하는 것도 결국 治國平天下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慨世의 탄식은 이루지 못한 치국평천하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작품에 나타난 亂世의 요인들은 邪術이 진실을 가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小人謀利輩들의 讒訴가 義人을 구축하고, 군주가 어리석어 국정을 어지럽히고, 邪術로써 백성을 속이고, 신하는 輔弼을

잘못하여 國基를 흔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어길 수 없는 天運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작자는 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굴의 현실주의자요, 실천주의자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 ① 驥尾蠅

이 작품은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행세한다는 驥尾之蠅의 고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sup>33)</sup> 실제의 내용은 소인 모리배들이 간사한 꾀로 부귀영달을 누리는 秕政과 世態를 탄식한 것이다. 이는 儒家道統과 經世之道를 크게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은 모름지기 사명감을 갖고 분투노력하여 난세를 바로잡자는 굳은 결의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薏苡化明珠

이 작품은 漢의 명장 馬援의 불운과, 정의가 불의에 묻혀버리는 사태를 개탄한 것이다. 마원이 南蠻을 평정하고 백성을 위하여 救恤식품인 율무 종자를 가득 싣고 온 것을 소인배들이 뇌물로 받은 보물이라고 참소하여 마원의 높은 뜻이 오히려 시련을 불러왔다는 고사를 탄식한 것이다. 소인의 참소는 積毀銷骨의 무서운 해독이니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마원의 이러한 환난도 자신의 교만과 과욕의 소치였음을 지적하면서 자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慨世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鳳凰不至

봉황은 태평성대의 상징물이니 봉황이 오지 않고, 기린이 헛되이 나타났다는 말은 곧 亂世를 개탄한 것이다.<sup>34)</sup> 공자를 비롯한 역대 성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우했고, 세상은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

33) 『史記』 伯夷列傳. 顏淵을 공자에 비유한 말.

34)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論語』 子罕.

으니 봉황이 올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작자는 이러한 고사나 감상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사대부의 노력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鳳凰 麒麟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영물에 얽매어 명분이나 허울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였다.

#### ④ 弔扶蘇

扶蘇는 진시황의 태자로서 촉망받았으나 간신들의 참소로 억울하게 賜死되었는데 이러한 역사의 비극의 주인공을 애도한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부소를 일방적으로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부소의 현명치 못한 처신으로, 또는 어길 수 없는 운명의 희생자로 날카롭게 간파하면서 감상적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부자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主流는 扶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애도와 중상과 모략이 횡행하는 세태에 대한 개탄이다.

#### ⑤ 一角獸

一角獸란 麒麟이라고도 하는데, 漢武帝 때에 이것이 나타났다고 하여 천하에 서광이 비쳤다고 법석을 떨었던 史實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은 그와 상관없이 戰役과 重稅에 시달렸던 역사적 사실을 개탄한 작품이다. 작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역대의 통치자들이 이러한 靈物들을 이용하여 정치적 邪術을 부리던 일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영물들이 출현하는 것과 실제의 현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헛된 詐術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⑥ 馬嵬驛

이 작품은 唐玄宗의 失政을 비판한 것이다. 그래서 양귀비와의 사랑이나 비극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군주로서 일개 아녀자에 현혹되어 본분을 다하지 못한 현종의 어리석음과 秕政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개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보다 훨씬 감상에 젖어 여기에서는 불굴의 현실주의자의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⑦ 幽蘭空谷

난초가 빈 골짜기에 묻혀있으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형세이다. 참된 인재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오히려 잡초가 판을 치는 난세를 개탄한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난세와 稅政을 개탄하고 있다. 慨世의 감정이 깊어 특유의 현실타개의 의지마저 꺾인 채 失志의 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관조적인 자세로 자위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Ⅲ. 결론

李荇의 사부작품을 儒家道統讚揚, 慕人, 經世之道, 修身, 慨世로 거칠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儒家道統讚揚은 작자의 가치관과 사상의 기반을 이념적으로 천명하는 작품들이다. 慕人은 그러한 이념을 실현한 성현들을 추모한 것이니 작자의 삶의 구체적 지표가 된다. 經世之道는 이념과 지표를 바탕으로 경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修身은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짐을 표백한 것이다. 慨世는 柔道가 실행되지 않고, 성현의 도가 흔들리고, 진리가 구현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도 작자는 유가사대부로서의 궁지와 사명의식을 사부작품을 통해서, 특히 修身類에서 굳건히 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서 유가 특유의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참여의지가 강렬하게 표현되어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권에 대한 阿諛의 태도도 불사한다. 가끔은 도가적 분위기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 작품 전체의 경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작자는 본질적으로 유가적 인본주의자이다. 어떠한 이념, 이상, 명분, 문물제도도 결국 그것을 구현, 실천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믿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祈雨祭 같은 反유가적인 행위마저도 포용하는 것은 그 신비주의를

수용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추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주체는 신비한 영험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니 이는 투철한 인본주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는 또한 철저한 文治주의 자요, 비폭력주의자이다.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俠氣, 血氣方剛에 의한 폭력은 유가의 義氣와 같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경향은 유가사대부로서 철저한 긍지, 사명의식, 실천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전형적인 제도권 문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자의 경향은 그의 辭賦작품이 유가이념에 의한 목적문학인 것과 관련이 깊다.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문학인 셈인데 이러한 이념문학으로써 審美的 성취는 어려운 것이어서, 李荇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는 사부문학 역사상 가장 많은 사부작품을 남겼지만 곧잘 이념이나 교훈적 목적에 얽매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로는 그 양을 따르지 못한다는 판단이고, 이것이 그 문학적 한계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작품의 양이나 사부문학의 흐름으로 보아 그는 李奎報<sup>35)</sup>, 徐巨正<sup>36)</sup>, 申光漢<sup>37)</sup>, 許筠<sup>38)</sup>, 張維<sup>39)</sup>와 더불어 한국사부문학

- 
- 35) 李奎報의 사부문학에 대한 연구로서는 金星洙, 「이규보의 사부문학1」, 『한어문교육』 8, 1999.; 金星洙, 「이규보의 사부문학2」 『한어문교육』 9, 2000. 등이 있었다.
- 36) 徐巨正의 사부문학에 대한 연구로서는 金星洙, 「서거정의 사부문학1」, 『한어문교육』 9, 2001.; 金星洙, 「서거정의 사부문학2」, 『한어문교육』 10, 2002. 등이 있었다.
- 37) 申光漢의 사부문학에 대해서는 유기옥, 「신광한의 사부연구」, 『한국언어문학』, 2000. 12.; 김성수, 「신광한의 사부문학 失志」, 『한자한문연구』 17, 2006.; 「신광한의 사부문학 浪漫 追慕」, 『한문고전연구』 13, 2006.; 「신광한의 사부문학 讚頌 修身」, 『한문고전연구』 17, 2008. 등이 있었다.
- 38) 許筠의 사문에 대한 연구로서는 김성수, 「허균의 사부문학」, 『인문사회과학연구』 13, 1998.; 김진영, 「허균 부 작품에 나타난 주제양상」, 『한문고전연구』 17, 2008.12 등이 있었다.
- 39) 張維에 관해서는 김정옥, 『계곡 장유의 사부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金星洙, 「장유의 사부문학1」, 『한자한문연구』, 2007.; 「장유의 사부문학2」, 『한문고전연구』 20, 2010. 등이 있었다.

의 한 획을 긋는 주요한 작가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에서 더 이상 그의 사부작품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작품의 原文과 形式을 제시할 지면이 없어 못내 아쉽다.

이 몇몇 사부작가들에 관한 몇 편의 소략한 연구로는 한국사부문학에 대하여 盲人摸象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사부문학 연구에 대한 오늘날 학계의 형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작품의 양으로 말하면 이들을 능가하는 辭賦家들의 작품이 아직도 文集 한 구석에 하염없이 묻혀있는 것을 생각하면 후손으로서 선인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 그리고 작품의 질로 말하면 미처 파악되지 못한 뛰어난 작가, 작품들이 얼마나 숨어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바라건대 이 소중한 사부문학유산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 <參考 文獻>

- 『十三經註疏』, 『論語』, 臺灣 藝務印書館, 1980.  
 \_\_\_\_\_, 『孟子』, 上同.  
 \_\_\_\_\_, 『大學』, 上同.  
 『二十五史』, 『史記』, 上同.  
 莊周, 金學主 驛, 『莊子』, 을유문화사, 1988.  
 韓非, 『韓非子』, 臺灣 中華書局, 1982.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김정옥, 「계곡장유의 사부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유기옥, 「신광한의 사부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0.12.  
 김진영, 「허균 부 작품에 나타난 주제양상」, 『한문고전연구』 17, 한문고전연구회, 2008.12.  
 김성수, 「李荇의 哀朴仲說辭의 장르考」, 『한문고전연구』 15, 한문고전연구회, 2007.12.

### Abstract

*Leehang's SA-BU Literature / Kim Sung Su\**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Leehang is the figure who should receive due attention since he is the one who has left the largest number of SABU work and led the Gwangak literature (literature written by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done about him, which is not readily comprehensible. Though it is difficult to say some work is better than others, evaluation is somewhat important. Leehang's 62 work shows his own world of literature that cannot be easily copied by other SABU writers and that is why we need to have deeper understanding about him.

This study aims to enhance overall understanding on Leehang's SABU literature. From his SABU work, it can be said Leehang was thorough confucianist, Gwangak writer and realist as well as humanist. For lack of space, vast amount of information can not be discussed here and that is the limit of this paper. I believe other aspects of his work including literary structure can be dealt with next time.

**【Key words】** Leehang, SABU literature, Gwangak literature, confucianist, humanist, realist

투고일 : 10월 26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

---

\*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imss@kongju.ac.kr